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유형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Pattern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서정희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홍순명
시간강사 황혜진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lsan University

Professor : Jeong-Hee Seo

Dept. of Food & Nutrition, Ulsan University

Professor : Soon-Myung Hong

Lecturer : Hye-Jin Hw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V. 결과 및 고찰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문제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

<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of two groups; the housekeepers and the restaurant cooks. The rationale for choosing these groups as target of research lies in the fact that they are expected to be the most active subject for enhancing the desirable culture of food consumption, through their close involvement in the whole process of food consumption in society. This study assumes the four areas of activity to be the meaningful categories in the investigation of the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ur; planning of menu and purchasing the food materials, cooking, eating, and disposal of the leftover. By using these four categories, we attempt to provide with the empirical typology of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ur an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 of it with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Their pro-environmental behaviors are divided into four types: ① The positive awareness of pro-

environmental cooking and eating, ② The positive awareness of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③ The passive awareness of pro-environmental cooking and eating, ④ The passive awareness of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numbers of the cases that belong to each behavioral type. Seen in overall, however, we can say that the larger number of the cases belong to the passive type of behavior.

Two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of the housekeepers and the restaurant cooks show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behavioral types of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with the confidence level $P < 0.05$, but there is no significant co-relations in other variables like gender, marital status, age, income, Engel coefficient, education.

We also found that there is no great gap between the housekeepers and the restaurant cooks in their positive awareness of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the percentage of each group belonging to the type being 51.9% and 48.1%, respectively, but that the former shows much greater number than the latter in belonging to the passive awareness type of the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75.3% and 24.7%, respectively. Although the restaurant cooks can be said to be more eco-friendly than the housekeepers, if we consider the rapidly growing trend of outgoing-diner, more efforts should be exerted to develop the education and advertisement program for enhancing the restaurant cook's pro-environmental awareness and propagating the desirable food consumption culture.

I. 서론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인간위주의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환경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문화로써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3년 국제소비자연맹(IOCU)이 새로운 소비자행동의 이념으로 제기한 지속가능한 소비의 개념도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환경의식이 제고되고 있기는 하나 환경친화적 행동은 환경친화적 의식이나 태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양식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소비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과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행동도 환경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원인이 된다.

인간의 소비생활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새로운 소비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생활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은 하루에 세끼의 식사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생활 중에서 음식소비행동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총생활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어느 비목에 비하여 크고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소비적인 음식문화로 인하여 가정용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큰 실정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퇴비화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근원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은 아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단작성과 식품의 구매와 조리과정, 식사하는 과정부터 남은 음식의 처리문제까지 음식소비의 전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이 음식문화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비

용의 소비뿐 아니라 시간의 소모와 불편함이 따른다. 구매, 사용, 처분 영역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중에서 보상이나 벌칙 등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가장 불편한 사용행동의 수행 수준이 가장 낮다(박운아, 1997). 이처럼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동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치러야 할 비용의 정도가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음식 소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부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음식소비행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이 어떠한 경험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밝히고, 이 구성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경험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를 다룬 연구(민현선, 1998; 심미영, 1999; 유두련·심미영, 1998),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을 조사한 연구(노채영·신효식·조혜정, 1991; 민현선·이기춘, 1995; 박운아·이기춘, 1995; 서정희, 1986; 1991; 1998; 1999; 이승선·이혜임·류미현, 1993; Constantini & Hanf, 1972; Henion, 1972; Kinnear, Taylor, Ahmed, 1974; Tucker, 1980; Van Liere & Dunlap, 1980), 재활용행동에 관한 연구(서정희, 1997; Peters, 1974; Vining & Ebreo, 1990), 환경친화적 의복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서정희·이은숙, 1999; 이춘희, 1995; Shim, 1995; Stephens, 1985) 등이 있으며,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조사하여 경험적으로 유형화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에 가장 많이 관여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부와 조리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수준을 측정한다.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식단의 작성과 식품구매, 조리, 식사, 남은 음식 처리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 4개 요인들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유형

화하고,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문화를 배격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형성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개념

환경친화적 소비는 소비자가 자신의 사적인 요구나 시장 효율성 뿐 아니라 자신이 소비한 결과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박운아, 1997). 구매에서 사용 및 처분에 이르는 모든 소비행동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사적인 소비가 타인,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사용, 처분하는 것을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민현선·이기춘, 1996; 박운아·이기춘, 1995).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식단작성부터 음식을 하기 위한 식품의 구매, 조리하는 과정, 식사, 남은 음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방법의 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임으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차원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경험적으로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유형화의 기준이 되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차원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행동은 크게 구매, 사용 및 처분의 3개 과정으로 구분된다. 음식소비행동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식단작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가계의 경제적 능력과 가족원과 음식을 먹을 사람 즉 음식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하여 식단을 짚으로써

남은 음식의 양을 줄이고, 그 식단에 맞추어서 음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버리는 음식재료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식단작성 및 구매를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하나의 차원이라고 보았다. 식단작성 및 구매행동에는 ① 먹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식단을 작성한다. ② 제철 식품 위주로 식단을 작성한다. ③ 먹는 사람의 수보다 넉넉하게 식품을 구매한다.(-) ④ 시장에 가기 전에 냉장고의 식품을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여 산다. ⑤ 가능한 적은 포장단위로 구입한다. ⑥ 식품 포장단위가 큰 경우 이웃과 공동구매한다. ⑦ 음식재료는 필요이상으로 구입하게 된다.(-) ⑧ 음식재료가 싸면 많이 산다.(-) ⑨ 외식할 때 남은 정도로 넉넉하게 주문한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경우도 있으나 외식문화가 발달한 상황이므로 이 문항을 식단 작성 및 구매 차원에 포함하였다.

식단을 작성하여 재료를 구입하면 다음과정에 조리하는 과정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조리를 두 번째 차원으로 보았다. 조리차원에는 ① 시장에서 사온 식품은 바로 손질하여 버리는 양을 최소화한다. ② 채소를 다듬을 때 버리는 양이 많다.(-) ③ 저울과 계량컵으로 재어 정확한 양의 음식을 만든다. ④ 가족행사(돌, 회갑, 집들이) 음식은 먹고 남은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한다.(-) ⑤ 야채자투리, 배추우거지, 차뿌리, 멸치머리, 북어머리, 닭뼈 등은 국물을 만드는데 이용한다. ⑥ 국이나 찌개를 함께 준비한다.(-) ⑦ 여러 가지의 반찬을 준비한다.(-) ⑧ 음식은 부족하지 않도록 남은 정도로 준비한다.(-) 등을 포함하였다.

조리한 다음에는 식사를 하므로 세 번째 차원을 식사로 설정하였다. 식사차원에는 ① 가족행사(돌, 회갑, 집들이) 음식은 뷔페식으로 준비한다. ②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습관을 들인다. ③ 덜어 먹는 상차림을 준비한다. ④ 국이나 찌개의 국물의 양은 넉넉하게 주문한다. 등을 포함하였다.

식사를 한 다음에는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은 음식처리를 마지막 차원에 포함시켰다. 이 차원에는 ① 남은 음식은 1회 정도 버

을 분량씩 포장하여 냉동보관 한다. ② 외식할 때 남은 음식은 싸가지고 온다. ③ 냉동실에는 1회분씩 적게 포장하여 보관한다. ④ 남은 음식은 즉시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 ⑤ 냉장고에 보관하다 버리는 음식 및 재료가 많다.(-) 등을 포함하였다. 이상에서 (-) 문항은 적게 수행할수록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유형의 관련변수

이 논문에서는 성별, 결혼여부, 연령, 소득과 앵겔 계수, 교육, 직업 등이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관련변수로 보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경험적으로 유형화하고 관련변수를 밝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1) 성별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이 높다는 연구들이 많았다(Baldassare & Katz, 1992; 양덕권, 1994; 민현선과 이기춘, 1996; 민현선, 1998). 그러나 Scott와 Willits(1994)는 개인적 수준의 환경친화적 행동은 여자가 더 잘하고, 공공행동적 수준의 환경친화적 행동은 남자가 더 강하다고 하였다. 민현선(1998)의 연구에서도 사회지향적 차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개인지향적 차원은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더 환경친화적 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행동을 구성하는 내용에 따라 성별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결혼여부

미혼소비자에 비하여 기혼소비자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연구(양덕권, 1994)와 구매영역, 사용영역 및 처분영역 모두에서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하여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민현선과 이기춘(1996)의 연구가 있다. 구매,

사용, 처분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동이 기혼 소비자, 특히 기혼 주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미혼 소비자의 구매나 사용행동은 자신을 위한 개인적 소비행동이 많고 처분행동은 주로 가정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혼소비자보다는 기혼소비자가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민현선과 이기춘, 1996).

3) 연령

연령이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결과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을 한다는 연구로는 Vining & Ebreo(1990), 이승신 외(1993), 박운아(1997), 서정희와 염수경(1998) 등이 있으며, 나이가 적은 집단이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을 더 잘 수행한다는 연구로는 Van Liere & Dunlap (1980), 박운아와 이기춘(1995) 등이 있다. 서정희(1991), 유두련 외(1996) 등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소득과 앵겔계수

음식물소비행동은 소득뿐 아니라 앵겔계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고찰한바에 의하면 앵겔계수와 관계를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득만을 고찰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서정희, 1986; 1991; 이승신·이혜임·류미현, 1993; Henion, 1972; Kinner, Taylor & Ahmed, 1974; Peters, 1974; Tucker, 1980; Van Liere & Dunlap, 1980; Vining & Ebreo, 1990), Constantini와 Hanf(1972)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자원을 절약한다고 하였다. 박운아와 이기춘(1995), 민현선과 이기춘(1996)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소득이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박운아(1997)는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을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는 행동과 절약

과 무관하거나 혹은 추가비용이 부담되는 행동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은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는 행동과는 부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절약과 무관하거나 추가비용이 부담되는 행동과는 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은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월평균가계소득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서정희의 연구(199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은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서정희와 염수경의 연구(1998), 학령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은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서정희와 염수경의 연구(1999), 여대생의 소비절약행동과 환경보존행동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노채영, 신효식, 조혜정의 연구(1991) 등이 있다.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을 사회지향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룬 민현선(1998)의 연구에서도 소득은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육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연구는 Van Liere & Dunlap (1980), 서정희(1991), 이승신 등(1993), 박운아(1997)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서정희와 염수경(1998)의 연구에서는 전문대졸보다 대졸이 더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선과 이기춘(1996)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은 고졸 이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졸 이상이고, 대학 재학이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교육이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의 내용과 연구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6) 직업

주부의 취업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비취업 주부일

경우에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이 높은 연구로는 이승신 등(1993), 박운아(1997)의 연구가 있으며, 특히 박운아(1997)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직업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는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취업과 비취업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는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비취업 여성이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두련 등(1996)의 연구는 주부의 취업상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 직업이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의 내용과 연구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4. 연구문제

이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식단 작성 및 구매, 조리, 식사, 남은 음식처리의 4차원에 의하여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유형은 이 논문에서 설정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주부 217명과 울산광역시 영양사회가 주최하는 조리사 보수교육에 참가한 조리사 129명이다. 주부는 질문지의 내용과 조사방법을 교육받은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통하여 직접 주부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주부가 직접 기입하게 한 후에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조리사는 조리사 교육시간에 강사를 통하여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조리사가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조사는 1999년 5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2. 조사도구 작성

1)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것처럼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측정하는 내용을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을 주는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로 표시된 문항은 '그렇지 않다'를 4점, '가끔 그렇다'를 3점, '보통 그렇다'를 2점, '항상 그렇다'를 1점으로 하였다.

<표 1>에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구성요인별로 Cronbach의 α 계수로 측정된 신뢰도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4개의 요인 모두 신뢰도계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의 α 계수는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의미하므로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구성하는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것처럼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수행정도는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에 속하는 문항이라도 소비자들이 수행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2) 월평균 총소득

1년간 가족원이 받는 월급,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모두 합하여 12개월로 나누어서 구하였다.

3) 소득에 대한 식생활비의 지출(엔겔계수)

총식료품비를 총생계비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여 구하였다.

<표 1>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신뢰도

| 차 원 | 문항수 | 신뢰도 |
|------------|-----|-----|
| 식단 작성 및 구매 | 9 | .52 |
| 조리 | 8 | .59 |
| 식사 | 4 | .35 |
| 남은 음식 처리 | 5 | .29 |

3. 자료분석방법

모든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구성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고,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구성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화하기 위하여 집락분석을 하였다. 집락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집락을 독립변수로 하고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구성요인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집락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에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성별은 남자는 10.5%이고 여자가 84.1%를 차지하였다. 이 논문이 주부와 조리사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남자는 모두 조리사이다. 연령은 40대가 4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로 32.6%, 50대 이상이 11.1%로 가장 적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81.1%이고, 미혼이 11.0%이다. 미혼은 모두 조리사이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16.5%로 가장 적었고, 고졸은 53.1%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은 30.4%이었다.

직업은 주부가 58.5%, 조리사가 34.8%이고, 기타는 주부 중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6.8%이었다. 월평균소득은 80만원 미만이 5.1%로 가장 적었고, 80-120만원과 120-150만원이 15.2%, 150-200만원이 27.7%, 200-300만원이 25.9%, 300-500만원이 7.7%, 500만원 이상이 3.3%를 차지하였다. 소득에 대한 생활비의 지출비율을 의미하는 앵겔계수는 20% 미만이 16.4%, 20-30% 미만이 34.0%, 30-40% 미만이 31.6%, 40-50% 미만이 10.4%, 50-60% 미만이 4.5%, 60-70% 미만이 1.8%, 70 이상이 1.2%를 차지하였다.

<표 2> 일반적 특성

| 변 | 수 | 빈도(%) |
|------------|--------------|-----------|
| 성 별 | 남 | 43(10.5) |
| | 여 | 343(84.1) |
| 연 령 | 20대 | 44(11.6) |
| | 30대 | 123(32.6) |
| | 40대 | 169(44.7) |
| | 50대이상 | 42(11.1) |
| 결혼여부 | 기혼 | 331(81.1) |
| | 미혼 | 45(11.0) |
| 교육수준 | 중졸 이하 | 61(16.5) |
| | 고졸 | 196(53.1) |
| | 대학 이상 | 112(30.4) |
| 직 업 | 주부 | 217(58.5) |
| | 조리사 | 129(34.8) |
| 월평균 총소득 | 80만원 미만 | 17(5.1) |
| | 80-120만원 미만 | 51(15.2) |
| | 120-150만원 미만 | 51(15.2) |
| | 150-200만원 미만 | 93(27.7) |
| | 200-300만원 미만 | 87(25.9) |
| | 300-500만원 미만 | 26(7.7) |
| 500만원 이상 | 11(3.3) | |
| 앵겔계수 | 20% 미만 | 55(16.4) |
| | 20-30% 미만 | 114(34.0) |
| | 30-40% 미만 | 106(31.6) |
| | 40-50%미만 | 35(10.4) |
| | 50-60% 미만 | 15(4.5) |
| | 60-70% 미만 | 6(1.8) |
| | 70% 이상 | 4(1.2) |

* 무응답으로 인하여 백분율의 누계가 100%가 안됨

2.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구성요인간의 관계

<표 3>에 의하면 총체적인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4개의 구성요인과 모두 P<.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인다.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조리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남은 음식처리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단작성 및 구매, 조리, 식사 및 남은 음식 처리는 각각 P<.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구성하는 한 영역에서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는 다른 영역에서도 환경

〈표 3〉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구성요인간의 상관관계

| | 식단작성 및 구매 | 조리 | 식사 | 남은 음식 처리 |
|--------------|-----------|---------|---------|----------|
| 식단작성 및 구매 | - | | | |
| 조리 | 0.38*** | - | | |
| 식사 | 0.43*** | 0.48*** | - | |
| 남은 음식 처리 | 0.39*** | 0.48*** | 0.37*** | - |
|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 0.76*** | 0.81*** | 0.72*** | 0.67*** |

*** P <.001

친화적으로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유형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4개 구성요인인 식단의 작성과 식품구매, 조리, 식사, 남은 음식 처리를 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증적으로 가능한 집단 수와 내용상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8개, 7개, 5개, 4개, 3개 집단으로 유형화시키고 각 경우의 빈도와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유형화의 기준이 되는 4개 요인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구성요인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4개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검증을 한 결과가 〈표 4〉에 제시

되어 있다. 4개 구성요인 모두 P<.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며, Scheffe' 검증 결과도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식단의 작성과 식품구매, 조리, 식사, 남은 음식 처리의 4개 요인에 의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적절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군집분석을 통하여 4개 집단으로 구분한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5〉에서 4개 구성요인의 표준화된 점수와 Scheffe' 검증결과를 기초로 하여 집단간 점수순위를 표시하였다.

〈유형 1〉은 조리와 식사 요인에서는 +부호를 보이고 다른 집단과의 상대적 순위에서도 2위를 보임으로서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식단 작성과 구매, 남은 음식 처리 요인은 -부호를 보이고 상대적 순위도 3위를 보임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표 4〉 유형별 각 구성요인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 요인 \ 유형 | 유형1 (82) | 유형2 (65) | 유형3 (71) | 유형4 (80) | F ratio |
|-----------------|-------------|-------------|-------------|-------------|-----------|
| 식단작성 및 구매 순위 | 24.67 3 | 29.03 1 | 27.70 2 | 21.98 4 | 111.73*** |
| 조리 순위 | 22.73 2 | 25.62 1 | 19.34 3 | 18.36 4 | 134.61*** |
| 식사 순위 | 16.39 2 | 16.74 1 | 14.49 3 | 12.99 4 | 99.93*** |
| 남은 음식 처리 순위 | 9.94 3 | 12.20 1 | 10.49 2 | 8.73 4 | 71.68*** |

*** P<.001

〈표 5〉 유형별 각 요인의 표준화된 점수와 집단간 순위

| 요 인 \ 유 형 | 유형1 환경친화적 조리·식사 적극수행유형 (82) | 유형2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적극수행유형 (65) | 유형3 환경친화적 조리·식사 소극수행유형 (71) | 유형4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적극수행유형 (80) |
|-----------------|--------------------------------------|---------------------------------------|--------------------------------------|---------------------------------------|
| 식단작성 및 구매 순서 | -0.21 3 | 0.93 1 | 0.55 2 | -1.05 4 |
| 조리 순서 | 0.37 2 | 1.15 1 | -0.55 3 | -0.81 4 |
| 식사 순서 | 0.60 2 | 0.76 1 | 0.27 3 | -0.95 4 |
| 남은 음식 처리 순서 | -0.19 3 | 0.98 1 | 0.10 2 | -0.81 4 |

유형을 환경친화적 조리·식사 적극 수행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조사대상자 중에서 82명을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수가 포함되었다.

〈유형 2〉는 네 요인 모두 + 부호를 보이고 상대적 순위도 모두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4개 요인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수행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적극 수행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주부와 조리사는 65명으로 가장 적은 수가 포함되었다.

〈유형 3〉은 식단 작성과 구매요인과 남은 음식 처리 요인에서는 +부호를 보이고 다른 집단과의 상대적 순위에서도 2위를 보임으로서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조리요인과 식사요인은 -부호를 보이고 상대적 순위도 3위를 보임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는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요인을 환경친화적 조리·식사 소극 수행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유형 1과 정반대 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 중에서 71명을 차지함으로써 세 번째로 많은 수가 포함되었다.

〈유형 4〉는 네 요인 모두 - 부호를 보이고 상대적 순위도 모두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4개 요인 모두에서 가장 소극적으로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수행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소극 수행유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주부와 조리사는 8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가 포함되었다.

〈표 6〉에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유형별로 어떠한 소비자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조리사와 주부로 분류한 직업만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이며 성별, 결혼여부, 연령, 소득, 엔젤계수, 교육 등은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남자는 모두 조리사이고, 사례수가 43명으로 너무 적었고, 결혼여부의 경우도 미혼은 모두 조리사이고, 사례수가 11명으로 너무 적었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사례수가 포함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소득은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월평균가계소득은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서정희의 연구(199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은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서정희와 염수경의 연구(1998), 학령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은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서정희와 염수경의 연구(1999), 여대생의 소비절약행동과 환경보존행동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표 6〉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유형별 소비자특성 교차분석

| | | 환경친화적 조리·식사 적극수행 유형 |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적극수행 유형 | 환경친화적 조리·식사 소극수행 유형 |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적극수행 유형 | |
|-------------------|--------------|---------------------------|----------------------------|---------------------------|----------------------------|--------------------------|
| 성별 (290) | 남자 | 10(12.5) | 6(10.0) | 7(10.0) | 7(8.8) | $x^2 = 0.64$ df = 3 |
| | 여자 | 70(87.5) | 54(90.0) | 63(90.0) | 73(91.3) | |
| | 계 | 80(100.0) | 60(100.0) | 70(100.0) | 80(100.0) | |
| 결혼 여부 (298) | 기혼 | 70(88.6) | 54(94.7) | 60(85.7) | 72(91.1) | $x^2 = 3.08$ df = 3 |
| | 미혼 | 9(11.4) | 3(5.3) | 10(14.3) | 7(8.9) | |
| | 계 | 79(100.0) | 57(100.0) | 70(100.0) | 79(100.0) | |
| 연령 (298) | 30대 이하 | 36(43.9) | 31(47.7) | 31(43.7) | 29(36.3) | $x^2 = 2.10$ df = 3 |
| | 40대 이상 | 46(56.1) | 34(52.3) | 40(56.3) | 51(63.8) | |
| | 계 | 82(100.0) | 65(100.0) | 71(100.0) | 80(100.0) | |
| 소득 (298) | 120만원 미만 | 8(9.8) | 13(20.0) | 14(19.7) | 9(11.3) | $x^2 = 8.65$ df = 3 |
| | 120-150만원 미만 | 16(19.5) | 6(9.2) | 9(12.7) | 10(12.5) | |
| | 150-200만원 미만 | 21(25.6) | 17(26.2) | 15(21.1) | 19(23.8) | |
| | 200만원 이상 | 37(45.1) | 29(44.6) | 33(46.5) | 42(52.5) | |
| | 계 | 82(100.0) | 65(100.0) | 71(100.0) | 80(100.0) | |
| 앵겔 계수 (298) | 20% 미만 | 8(9.8) | 13(20.0) | 10(14.1) | 9(11.3) | $x^2 = 8.26$ df = 3 |
| | 20-30% 미만 | 23(28.0) | 24(36.9) | 22(31.0) | 23(28.8) | |
| | 30-40% 미만 | 23(28.0) | 16(24.6) | 17(23.9) | 22(27.5) | |
| | 40% 이상 | 28(34.1) | 12(18.5) | 22(31.0) | 26(32.5) | |
| | 계 | 82(100.0) | 65(100.0) | 71(100.0) | 80(100.0) | |
| 교육 (284) | 중졸이하 | 10(13.2) | 11(18.3) | 9(13.2) | 14(17.5) | $x^2 = 1.69$ df = 3 |
| | 고졸 | 44(57.9) | 31(51.7) | 36(52.9) | 43(53.8) | |
| | 대졸 이상 | 22(28.9) | 18(30.0) | 23(33.8) | 23(28.8) | |
| | 계 | 76(100.0) | 60(100.0) | 68(100.0) | 80(100.0) | |
| 직업 (263) | 주부 | 51(67.1) | 27(51.9) | 38(61.3) | 55(75.3) | $x^2 = 7.87^*$ df = 3 |
| | 조리사 | 25(32.9) | 25(48.1) | 24(38.7) | 18(24.7) | |
| | 계 | 82(100.0) | 65(100.0) | 71(100.0) | 80(100.0) | |

*P<.05

노채영, 신호식, 조혜정의 연구(1991),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의 사회지향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모두 소득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민현선(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소비자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한다는 연구들(서정희, 1986; 1991; 이승신·이혜임·류미현, 1993; Henion, 1972; Kinner, Taylor & Ahmed, 1974; Peters, 1974; Tucker, 1980; Van Liere & Dunlap, 1980; Vining & Ebreo, 1990)과 소득이 낮을수록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들(Constantini와 Hanf,

1972, 박운아와 이기춘, 1995; 민현선과 이기춘, 1996)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주부와 조리사를 비교해 보면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4개 유형 모두 주부가 조리사에 비하여 많았다. 그러나 유형별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적극 수행유형은 주부가 51.9%, 조리사가 48.1%로 차이가 매우 적으나,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소극 수행유형은 주부가 75.3%로 조리사 24.7%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친화적 조리·식사 적극 수행유형은 주부가 67.1%, 조리사가 32.9%를 차지하였고, 환경

친화적 조리·식사 소극 수행유형도 주부가 61.3%, 조리사가 38.7%를 차지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음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바람직한 음식소비문화를 형성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부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측정하였다.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식단 작성 및 구매, 조리, 식사, 남은 음식 처리의 4개 구성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4개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경험적으로 유형화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가정한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4개 구성요인은 각각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총체적인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과도 상관의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환경친화적 조리와 식사 적극 수행유형,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적극 수행유형, 환경친화적 조리와 식사 소극 수행유형,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소극 수행유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음식소비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소비자교육과 영양교육에서는 4개 유형별로 서로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친화적 조리와 식사 적극 수행유형은 조리화 식사 영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나 식단 작성 및 구매 영역과 남은 음식 처리 영역에서는 보다 소극적으로 환경친화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집단이므로 식단 작성 및 구매와 남은 음식 처리를 더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조리와 식사 소극 수행유형은 환경친화적 조리와 식사행동을 강조하는 교육,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소극 수행유형은 4개 요인 모두 강조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4개 유형에 속하는 사례수는 큰 차이는 없으나, 환경친화적 조리와 식사 적극 수행유형은 82명이나, 환경친화적 조리와 식사 소극 수행유형은 71명,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적극 수행유형은 65명인데 비하여,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소극 수행유형은 80명을 차지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유형보다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유형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전반적으로 권장하는 소비자교육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4개 구성요인이 모두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조리사에 비하여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주부가 많으므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TV와 라디오의 프로그램과 신문을 포함하여 각종 잡지 등에서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업무 담당자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이 음식물쓰레기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음식문화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반사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리사는 주부보다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나, 외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조리사의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수행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조리사 보수교육과 조리사시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바람직한 음식소비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학자, 영양학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관계자,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매스컴의 관계자들이 포함된 가칭 '환경친화적 음식소비문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요리책과 인터넷

넷의 요리 사이트를 이용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자 조리사와 여자 조리사의 비교, 기혼 조리사와 미혼 조리사의 비교, 조리사 이외의 직업을 가진 주부와 전업주부와의 비교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심리적 변수, 환경친화적 가치, 환경교육 경험 등의 변수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노채영 · 신효식 · 조혜정(1991).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 제9권 2호, 49-62.
- 2) 민현선(1998).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민현선 · 이기춘(1996).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과 환경규제방안에 대한 지지도, *대한가정학회지* 제 34권 3호, 107-121.
- 4) 박운아(1997). 기혼여성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박운아 · 이기춘(1995).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3권 4호, 199-212.
- 6) 서정희(1986). 환경문제 측면에서 본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서정희(1991).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기능과 관련변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9권 2호, 93-101.
- 8) 서정희(1997).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 및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1호, 27-40.
- 9) 서정희 · 염수경(1998). 교사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유아환경교육요구도, *소비문화연구* 제 1권 1호, 67-92.
- 10) 서정희, 염수경(1999). 어머니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유아환경교육요구도, *소비문화연구* 10권 2호, 17-40.
- 11) 서정희 · 이은숙(1999). 대학생의 경제적 불안과 환경친화적 의복소비행동에 대한 태도, *소비문화연구* 제 2권 2호, 159-178.
- 12) 심미영(1999).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책임적 소비자태도와 행동의 일치성 및 영향요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양덕권(1994). 환경사업의 전개와 환경의식적 소비자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4) 유두련 · 심미영(1998).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권 3호, 123-140.
- 15) 이승신 · 이혜임 · 류미현(1993).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자능력, *소비자학 연구*, 제4권 2호, 73-96.
- 16) 이춘희(1995). 소비자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복관리행동과 의류자원 재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장경혜(1996). 사회책임적 의류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Baldassare, M. & Katz, C.(1992). The personal threat of environmental problems as predictors of environmental practices, *Environment and Behavior*, 24(5), 602-616.
- 19) Constantini, E. & Hanf, K.(1972). Environmental concern at lake Tahoe: A Study of elite perceptions, backgrounds and attitudes,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4, 209-242.
- 20) Henion, K.E.(1972). The effect of ecologically relevant information on detergent sal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9, 10-14.
- 21) Kinneer, T.C., Taylor, J.R. & Ahmed, S.A.(1974). The effect of ecological concern on brand percep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38, 20-34.
- 22) Peters, W.H.(1974). Who cooperates in voluntary recycling efforts, *Proceedings of the 36th combined conferenc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 23) Scott, D. & Willitis, F. K.(1994).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 -A Pennsylvania survey-, *Environment and Behavior*, 26(2): 239-260.
- 24) Shim, S.(1995). Environmentalism and consumer:

- Clothing disposition patterns: An exploratory stud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1), 33-48.
- 25) Stephens, S.H.(1985). Attitude toward socially responsible consumpti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and investigation of relationships to clothing acquisition and discar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26) Tucker L. R. Jr.(1980). Identifying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The Role of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4, 326-340.
- 27) Van Liere, K. D. and R. E. Dunlap(1980), The Social Bases of Environmental Concern: A Review of Hypotheses, Explanations and Practical Evid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4, 181-197.
- 28) Vining J. and A. Ebreo(1990). What Makes a Recycler?: A Comparison of Recyclers and Nonrecyclers, *Environment and Behavior* 22, 55-73.